【자유교회 소식】

1. 오늘 설교말씀은 고종환 원로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우리교회를 방문해 주신 목사님 내외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주 야외예배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 매주 수요예배는 올 해 우리교회의 중요한 영적목표인 성경일독을 돕기 위해 성경일독학교로 모입니다.
4. 다음주 특별순서는 허은석 성도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박준희 학생 부모님이 방문하셔서 오늘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6. 남관희 집사님이 알래스카에서 편지와 감사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7. 김갑련 권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출타중인 분들과 장기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0.00	
감사헌금:	$0.00	
주일헌금:	$0.00	
특별헌금:	$0.00	합 계: $0.00

중보기도 제목

- 우리교회에 주신 오천 명을 먹이는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 월드비전을 통해 우리교회가 돕는 어린 생명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인도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협력 선교하는 샌프란시스코 한생명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도록 하옵소서.
- 우리교회가 물질로 돕는 단체들을 통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순서

오전11:00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형제의 모습 속에	다 같 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우리에게 향하신	다 같 이
기 도	Prayer	조진기 집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고린도전서 13장	인 도 자
설 교	교회를 더욱 유익케 하는 은사	고종환 목사
찬송과봉헌	Hymn 236	다 같 이
파송과축도	Benediction	고종환 목사

■ 다음주기도: 박선영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 일 한 어 예 배	오전 11시
주 일 교 회 학 교	오전 11시
한글학교&Band모임	주일 오후 1:30
수 요 성 경 공 부	수요일 오후 7시
Nexus Youth Group	수요일 오후 7시

교회를 섬기는 이들

목 회 사 역	이진우 목사
행 정 사 역	최원춘 장로 조진원 권사
선 교 사 역	최장권 집사 김범준 집사
찬 양 사 역	최종국 성도 최종원 성도
친 교 사 역	최미선 권사
한 글 학 교	안미나집사 김범준 집사 조아라

2011년 6월 12일 제251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METHODIST CHURCH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Methodist Church

1702 Milton Way., Milton WA 98354
Tel (253) 661-5436, 227-1775
Homepage: www.jayoochurch.org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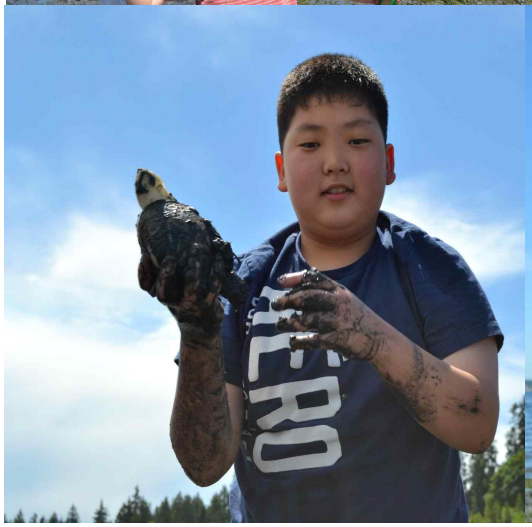





SHELTER USE
8:00 AM-DUSK










GREAT WOLF
LODGE

신앙칼럼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 중에 '군자유어의 소인유어이'(君子愈於義 小人愈於利)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그것이 의로운 일인가 불의한 일인가를 먼저 생각하지만, 소인은 매사를 생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뜻이다.

사탄은 40일을 금식하고 주리신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했다.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먼저 네 배부터 채우라는 말로서 예수님을 소인배처럼 행동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탄의 시험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심으로 시험을 이겨내셨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일본의 식민지 생활과 6·25 동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삶을 살아왔다.

원칙대로 줄을 서다가는 배급을 타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므로 새치기와 같은 편법과 요령이 자연히 생명을 유지하는 절박한 수단으로 여겨져 왔고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화가 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편법과 요령으로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절대로 좀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를 가고 원칙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삶이 발전하고 성공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한국을 가리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라고 부른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것은 참으로 미개한 후진국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이 후진국과 다른 것은 다만 소득의 차이가 아니다. 얼마나 원칙이 잘 지켜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도의 국부인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의 7가지 대죄'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그 중의 첫째가 원칙 없는 정치였다.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원칙 없는 정치이다. 재벌과 정치가 야합하여 오고간 부정한 돈들이 이 사회를 원칙이 통하지 않는 형편없는 사회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다가 망하고 있다.

누군가 우리나라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이 누구여야 하겠는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 소인배처럼 이익과 손해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40일을 굶은 후에도 돌로는 떡을 만들어 먹지 않겠다는 그런 고집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원칙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마치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가본 사람은 누구나 아는 일이 있다. 예수님의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 갈수록 넓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넓지만 갈수록 좁아진다는 것이다.

사소한 것 같이 보여도 원칙과 룰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편법과 요령을 버리고 정도를 걸어가는 삶을 훈련해야 한다.

처음에는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부자유스러운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다. 그와 같은 삶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유익해지고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32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떡보다 말씀을 더 중히 여겨 모든 삶의 원칙들을 지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